

# 전북자치도, '청렴자치도' 본격 가동

### 종합청렴도 1등급 도전... '청렴기틀·청렴일터·청렴이음' 3대 전략 중심 49개 반부패 과제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자치도'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에 나섰다.

도는 9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전북청렴자치도 정례회'를 열고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도 전 부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부처와 경제부처를 비롯해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그동안 분기별로 운영해 온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전북청렴자치도 정례회'로 격상해 청렴 정책을 도정 전반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은 △청렴기틀 전북 △청렴일터 전북 △청렴이음 전북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49개 세부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청렴기틀, 전북'은 리더십 기반의 청렴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이며, '청렴일터, 전북'은 전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청렴이음, 전북'은 도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청렴자치도 정례회'를 갖고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전 부서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하는 전략이다. 특히 도는 인사·재정 등 내부 행정 분야와 보조금, 공사 용역 등 도민과 접점이 많은 분야를 연계해 공직사회의 청렴 체질화를 추진하는 '전북청렴자치도' 구성을 핵심 시책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청렴 리스크 정밀 진단',

'찾아가는 현장소통 패트롤', '청렴정책 거버넌스' 등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청렴은 전북자치도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단단한 뿌리이자 자부심"이라며 "도 내 모든 기관이 함께 노력해 도민이

신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청렴자치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철 전북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에서 김종훈 경제부처 주재로 '전북 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 '전북 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 개최

### '글로벌레드바이오 혁신허브' 비전 위한 5대 전략·11대 핵심과제 제시 재생의료·정밀의료 등 미래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위한 방향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산업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도는 9일 도청에서 김종훈 경제부처 주재로 '전북 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외 학계, 연구기관, 병원 등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전북 바이오산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추진 계획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도는 지난해 협의회 출범 이후 바이오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바이오 얼라이언스 운영, 생명경제 포럼 개최, 글로벌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바이오 기업 30개사를 유치하고 총 3633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 4건을 확보했다. 또한 644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 9건에 선정되며 바이오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바이오 인력양성, 연구개발(R&D), 기업유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확대해 산업 생태계 조성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건강한 미래를 여는 글로벌 레드바이오 혁신허브, 전북'을 비전으로 하는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이 공유됐다.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령화 대응 재생의료 연구기반 조성 △정밀의료 시대 대비 혁신 코어기술 개발 △방사성의약품 기술사업화 글로벌 허브 구축 △농생명 자원 기반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5대 전략과 11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재생의료 분야 연구기반을 조성해 고령화 대응 핵심기술과 AI 기반 항노화 연구를 강화하고 의료데이터 기반 진단기술과 대체 의료기기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성의약품 분야에서는 동위원소 생산부터 비임상 평가, 제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술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자원을 활용해 첨단 바이오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산·학·연·관 협력 기반의 바이오 얼라이언스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기업 친화 정책 발굴과 앵커 기업 유치, 신규 사업 기회, 국가예산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오만호 기자

##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 돌움·혁신까지 맞춤 지원체계 구축... 총 105억 투입·45개사 모집 R&D·마케팅·공정개선까지 단계별 종합지원... 성장동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은 기업의 매출 규모와 성장 단계에 맞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 성장 지원사업이다. 올해는 신규 45개사를 포함해 총 10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기술 실증(RC) 지원'을 통해 기업 기술을 공공현장에서 시험·검증해 시장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AI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인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좌급별 맞춤형 교육도 운영한다. 신입사원의 조직 적응과 기초 역량 강화,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 향상, 최고경영자(CEO)의 미래 비전 수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의 기업의 성장 수준에 따라 단계를 구분해 지원한다.

'돌움기업(1단계)'은 매출액 1억~1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성장 기반을 다지는 단계다. 신규 17개사를 포함해 총 57개사에 27억원을 지원하며, 3년 간 기술

개발과 시제품 제작, 초기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한다.

'노약기업(2단계)'은 매출액 10억~50억원의 고성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고도화와 시장 확산을 지원한다. 신규 12개사를 포함해 총 42개사에 17억원을 투입해 기술 고도화와 기업 수요에 기반한 자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선도기업(3단계)'은 매출액 50억~1,500억원 규모의 지역 핵심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혁신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신규 13개사를 포함해 총 67개사에 47억원을 지원해 공정 개선과 기술 고도화, 국내외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혁신기업(4단계)'은 최근 3년 평균 매출 100억원 이상이며 전년도 수출 50만 달러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진입 역량을 확보하는 단계다. 신규 3개사를 포함해 총 7개사에 8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시장 진출

과 수출 확대를 집중 지원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중등 경제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 강조된 첨단 산업 거점 조성의 핵심은 결국 우리 지역 기업이 생태계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통합 홈페이지(<http://www.jbc.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서류심사(4월), 현장실사(5월 초), 발표평가(5월 중) 등을 거쳐 6월 초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

## '전북 재도약 현실화 사킬 책임자'

### 전북발전연합회, 이원택 도지사 후보 지지 선언

전북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단체인 전북발전연합회(회장 최현양)는 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원택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발전연합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현양 회장은 성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깊이 고민하며 전북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시대적 책임 앞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북은 지금 중요한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세계 산업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첨단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부가가치 미래에너지 산업과 청정에너지 중심 지역으로 도약할 역사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며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로봇 제조공장, 수소·AI 스마트도시 등 미래 산업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 전북이 AI·수소·로봇 산업이 결합된 대한민국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

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실행력과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이끌어 낼 경험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이원택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원택 의원은 전북 발전을 위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온 지도자라며 "세계 패권대전의 유지를 위해 아프리카 여러 국가를 방문하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전북 유치를 기여했고,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관 시절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이끌어 내 국가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오만호 기자

## '임실군수 선거, 정책으로 대결해야'

임실군수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김진명 출마 예정자에 대한 유언비어와 네거티브 공세가 확산되자 지지자들이 정책 중심 선거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진명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9일 성명을 통해 "사실을 왜곡한 인신공격성 루머와 유언비어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유포되면서 군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혼란 선거가 우려된다"며 네거티브

정치에 종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군수 선거는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기회가 돼야 한다"며 "흑색선전과 특정 후보에 대한 음해 대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거티브 정치로는 임실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며 "인구 감소와 농촌경제 침체, 지역소멸 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임실의 미래를 준비

할 군수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지자들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흑색선전 즉각 중단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과 비전 경쟁 △군민 앞 공개 정책 토론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지방선거 후보자 432명 가운데 35명을 부적격자로 결정하고 일부 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20~25% 감점



이 적용된다고 개별 통지한 이후, 경쟁 후보를 감점 대상으로 몰아내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만호 기자·임실=진용영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오늘 임시회 개최

### 13일까지 진행...도정·교육·학예 행정 관련 질문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3월 10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제 425회 임시회를 열고 4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12일 이틀간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먼저, 10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425회 임시회 초기 결정 및 회의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감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

2026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11일에는 김대중(익산)·이수진(비례)·윤영숙(익산)·오현숙(비례)·박정규(임실) 의원이 12일에는 한정수(익산)·김정수(익산)·최형철(전주) 의원 등 이틀간 총 8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각각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7건 등)을 심사하고, 심사한 안건은 오는 3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오만호 기자

##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12일까지

### 안건심사, 현안업무보고·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9일 2026년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8회 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의안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안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으며, 2건의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먼저 윤신애 의원은 공공심야약국과 심야병원이 동부권(조촌동)에 편중·운영되고 있다며 △서부권 및 남부권에 공공심야약국과 심야병원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 검토 △전문 의 확보와 심야진료 인력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및 인력수급 문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 △모바일 예약 시스템 도입 등 이용의 편의성 고도화를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협약 체결 관련 전북자치도는 앞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례를 활용한 공격적인 투자유치 진행 △상반기 내 군산시 인공지능(AI) 기본계획 즉각 수립 △RE100 및 재생에너지 4원기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의안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안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일 의원은 2010년 방조제 관할권 분쟁 이후 매립지가 조성될 때마다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며, 관할권 분쟁을 멈추고 새만금을 하나의 강력한 경제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행정통합뿐이라며 정부와 전북자치도에 새만금권 3개 도시의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즉각 마련할 것과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수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다.

/군산=김만호 기자